스몰캡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에이치피오	Not Rated(M)	- (M)
헥토이노베이션	Not Rated(M)	- (M)

올해도 폭염이다!

이어지는 역사상 최고 기온 경신 뉴스

과거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폭염 소식이 2023년 4월 이후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5월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폭염이 확인되었다. 6월 이후에는 아시아와 더불어 러시아, 미국, 중동, 유럽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8~9월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등 남미로도 확산되었다.

2024년에도 폭염과 관련된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에서는 30℃가 넘는 폭염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4월 독일, 5월 인도, 7월 미국과 러시아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역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2023 VS. 2024

2024년 1분기 열대 대서양과 서태평양, 남미, 중앙 아프리카 등 지구 전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은 16.7℃으로 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버클리어스는 지구 표면 온도 관측이 시작된 18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더웠던 2023년을 제치고 올해 신기록을 세울 확률이 95%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 현상이 종료될 조짐이 보이며, 연말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2024년 연평균 기온이 전년대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WMO의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GSCU)도 6~8월동안 모든 지역에서 평균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의 통계모형 예측으로도 올해 국내 여름 폭염이 평년대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이후 라니냐의 냉각효과가 평균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폭염에도 관심 받을 수 있는 기업

인체는 주위 환경과의 지속적인 열 교환을 통해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킨다. 고온에서는 피부혈관 확장, 피부 표면의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현상들이 발생되며, 기초대사에 의한 체열 발생 감소는 식욕부진 및 음식물 섭취 감소로 이어진다. 즉, 고온은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피부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에슬레저, Sun Care, 에스테틱, 유산균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종목: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 에코마케팅(230360), 에이치피오(357230), 헥토이노베이션(214180)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다!

장마 이후에 다가올 무더위!

작년부터 폭염과 관련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에서는 30℃가 넘는 폭염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6월 기준 30℃가 넘는 일수(서울기준)를 확인해보면 2024년은 17일이었다. 2022년(6일), 2023년(6일)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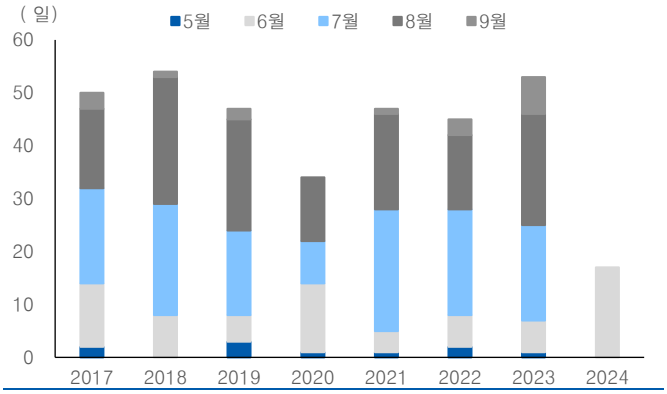
올해 6월 19일 최고기온은 35.8℃였다. 2022년(32.7℃), 2023년(34.0℃) 보다 높았으며, 2014년 이후 6월 최고 기온이었던 2020년 35.4℃보다 높았다. 단순히 체감으로 느끼는 더위가 아니라 실제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국내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인도는 5월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기상청(IMD)에 따르면 수도인 뉴델리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50℃내외의 기온이 확인되고 있다. 뉴델리의 역대 최고기온(1998.5월 48.4℃)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6월 18일 뉴델리 밤 기온은 55년만에 가장 높은 35.2℃를 기록함에 따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4월 6일 독일 남서부에서 30℃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 4월 초순에 30℃가 넘는 기온을 기록한 것은 1881년 기상관측 시작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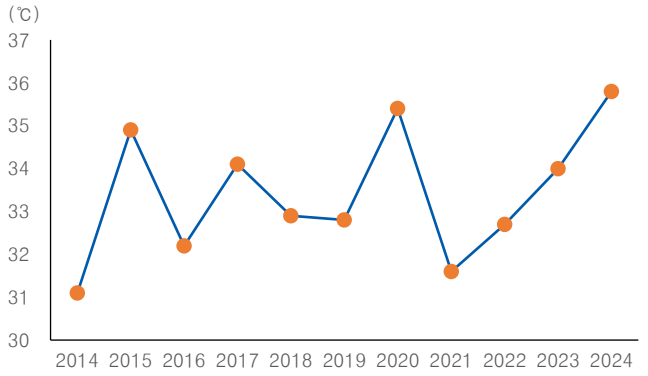
CNN(7월 16일) 뉴스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부터 캘리포니아나까지 약 100개 도시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라스베이가스 49℃, 중서부 46℃, 워싱턴DC 43℃를 기록했다. 7월 8일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55℃의 기온이 관측되었다.

[그림 1] 국내(서울) 월별 30℃ 이상 일수



자료: 기상청, 웨더아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서울) 연도별 6 월 최고기온



자료: 기상청, 웨더아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초에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최근 100년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다. 모스크바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20℃내외인 반면, 6월 22일 34.7℃에 이어 7월에도 30℃가 넘는 기온(7/2일 32.0℃, 7/3일 32.7℃)을 기록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폭염 소식이 2023년 4월 이후 전세계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5월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폭염이 확인되었다. 6월 이후에는 아시아와 더불어 러시아, 미국, 중동, 유럽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8~9월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등 남미로도 확산되었다.

2023년 지구 표면의 17%가 국지적으로 기록적인 연간 평균 기온을 기록했으며, 이 지역들은 인구 밀집 지역과 일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 2023 년 폭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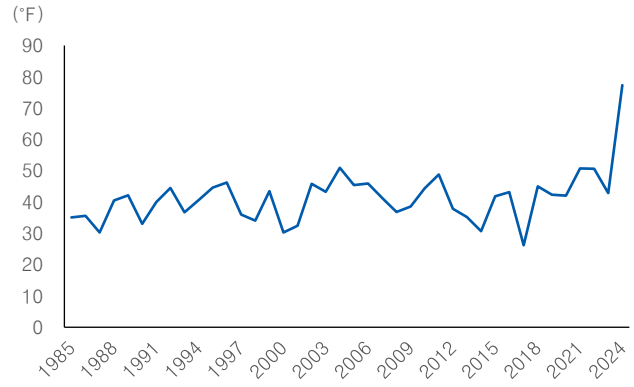
월	주요사항
4	인도 프라야그라지 44.6℃(4/17일) 방글라데시 4월 기온 40℃상회(58년만) 중국 후난성 4월초부터 22일 연속 최고 기온 35℃ 상회 태국 북서부 45.4℃(4월 사상 최고 기록)
5	베트남 호아성 44.1℃(최고기록)(5/6일) 싱가포르 37℃(40년만에 최고)(5/13일) 일본 도쿄 31.6℃(관측 사상 처음으로 5월 중순 31℃ 상회)(5/17일)
6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바예보 39.6℃(역대 최고 기온) 인도 다수의 주에서 45℃ 상회 (6/18일) 미국 텍사스 브라운즈빌과 코퍼스크리스티 49℃(6/17일) 중국 베이징 41.1℃(6월 사상 최고 기온)(6/22일) 이란 루트 사막 54.0(중동 지역내 최고 기온(6/22일)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43.8℃(6/22일)
7	중국 투르판 52.2℃(종전 역대 최고 기록 50.5℃)(7/16일) 이탈리아 로마 41.8℃(종전 역대 최고 기온 40.5℃)(7/18일) 미국 서브 데스벨리 54℃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 39.8℃(7/27일)
8	스페인 안달루시아 4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래스 30.1℃(117년만) 일본 8월 3일~8월 31일 열대야 현상
9	호주 시드니 낮 최고 기온 30℃ 상회(평년기온대비 15℃ 상회)

자료: 나무위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제로 더워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평균기온을 살펴보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와 커스텀웨더(Custom Weather)의 자료를 통해 1985년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평균온도는 [그림3~그림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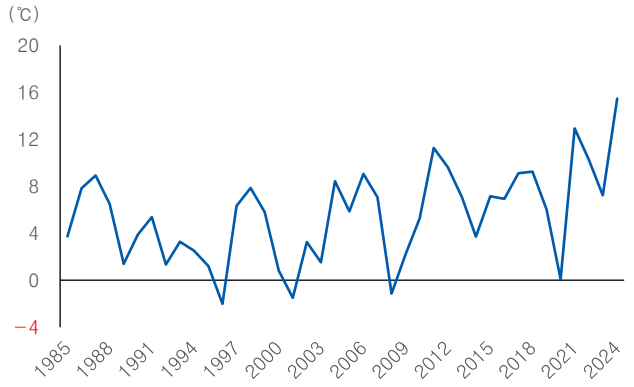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이전까지는 대륙별로 상이한 기온 흐름을 보였지만, 2023년도 이후 주요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폭의 평균온도가 상승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동일하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고 해석 가능하다.

[그림 3] 미국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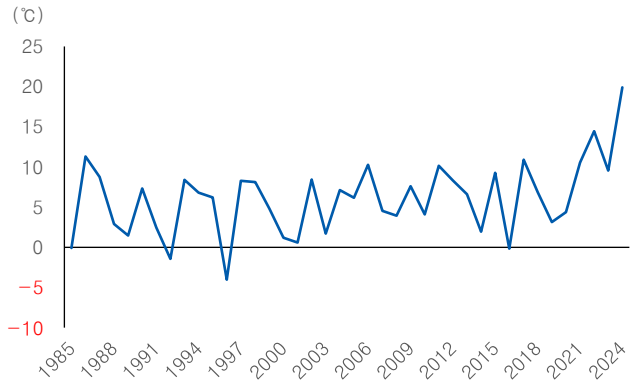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영국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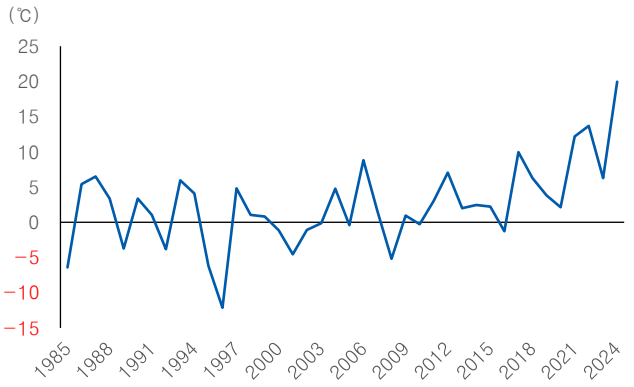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프랑스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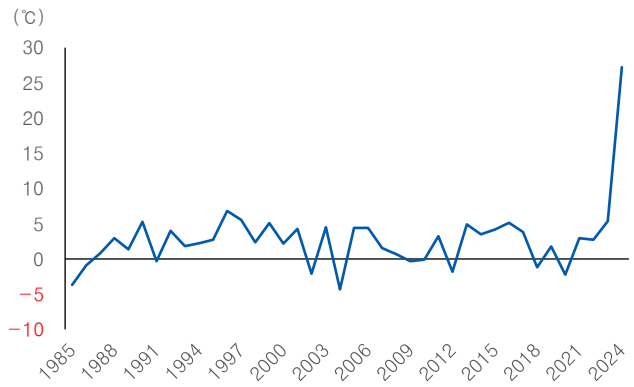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독일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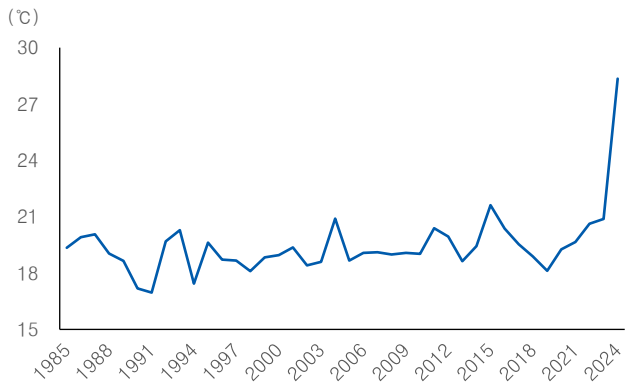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중국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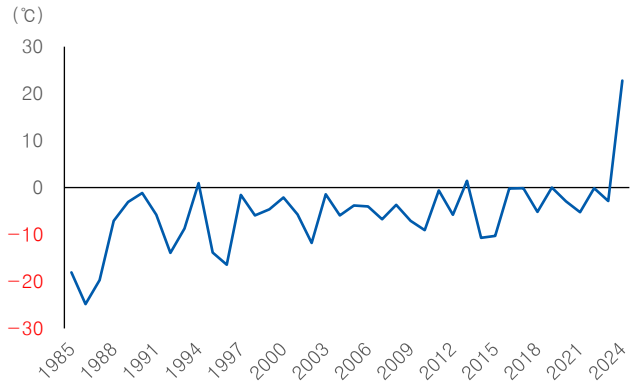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인도 연도별 평균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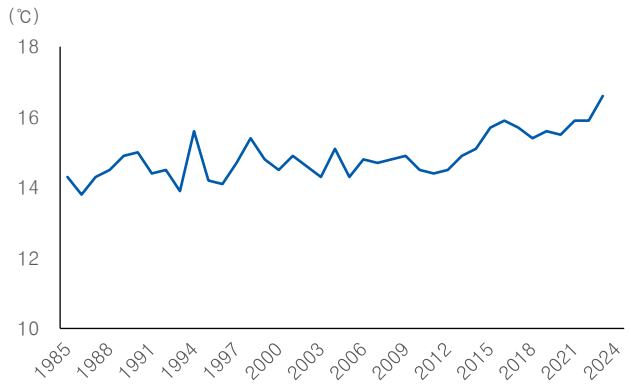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러시아 연도별 평균온도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한국 연도별 평균온도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커스텀웨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역대 가장 더웠던 해 vs. 2024년 더 더울지 모를 해

2023년 4월부터 폭염이 시작되었으면 현재 진행형이다. 2023년은 2020년부터 3년간 이어져왔던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가 시작되는 해이다. 2023년 4월 이후 3년만에 수온 편차가 플러스로 전환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엘니뇨 현상이 기온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WMO(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은 관측이 시작된 시점 이후 역사상 가장 더운 한해였다. 2023년의 전 지구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과 비교시 1.45℃(±1.5℃) 상승했다. 버클리어스(Berkeley Earth, 미국 기후분석단체)도 2023년을 1850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한 해로,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 대비 1.54℃(±0.6℃) 상회하면서 주요 임계값 1.5℃를 초과한 첫번째 해로 분석했다. 과거 가장 높은 해는 2016년이었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 지구 월평균 온도는 매달 월별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7월과 8월은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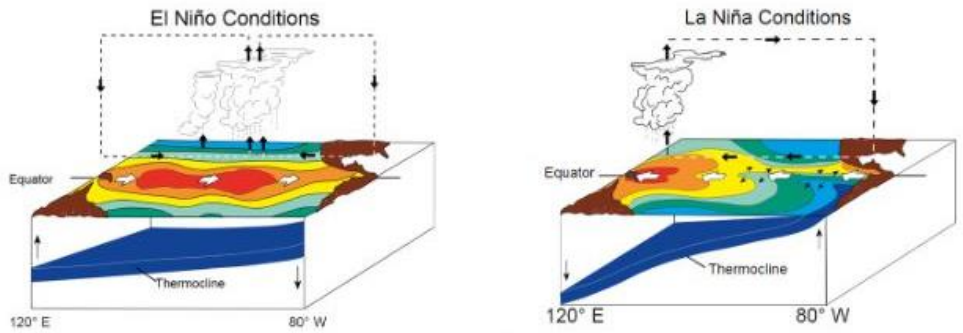
2024년은 2023년 대비 기온이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1분기 열대 대서양과 서태평양, 남미, 중앙 아프리카 등 지구 전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은 16.7℃으로 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작년대비 0.14℃,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대비 1.64℃ 높았다. 버클리어스는 지구 표면 온도 관측이 시작된 18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더웠던 2023년을 제치고 올해 신기록을 세울 확률이 95%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 현상이 종료될 조짐이 보이며, 연말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2023년 대비 2024년 연평균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6~8월(여름)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50%(중립)이지만, 7~9월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니냐는 열대 대기순화의 변화에 따라 중부/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라니냐의 냉각효과에도 평균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WMO의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GSCU)도 6~8월동안 모든 지역에서 평균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의 LSTM(Long Short Term Memory) 통계모형 예측으로도 올해 국내 여름 폭염이 평년대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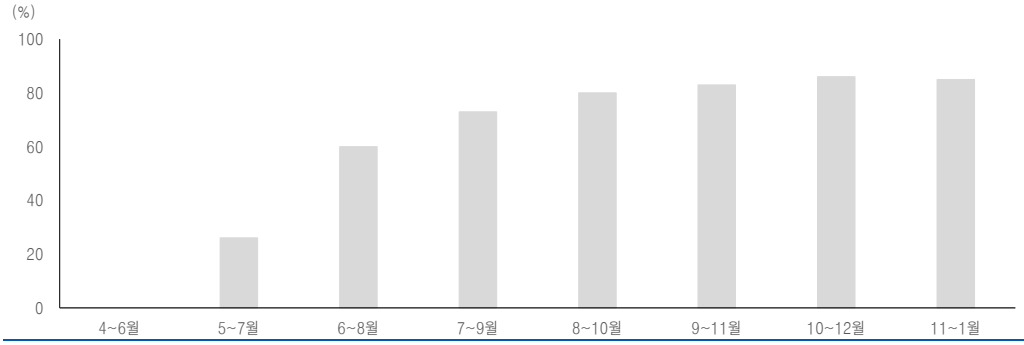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라니냐로 인해 글로벌 평균 기온이 하락할 가능성은 여름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그림 11] 엘니뇨 VS. 라니냐



자료: 기상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2024 년 라니냐 발생 가능성



자료: NOAA CP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5℃와 2.0℃

온실효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구환경에 위협요인으로 제기되었다.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주최로 오스트리아(필라흐)에서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참가한 과학자들은 국제적으로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988년 기후변화와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탄생하였다.

1990년 8월 IPCC의 1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주요내용으로 당시의 상태가 유지될 경우 2100년에는 전세계 평균 기온이 3℃ 상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기 중의 농도를 당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배출의 60%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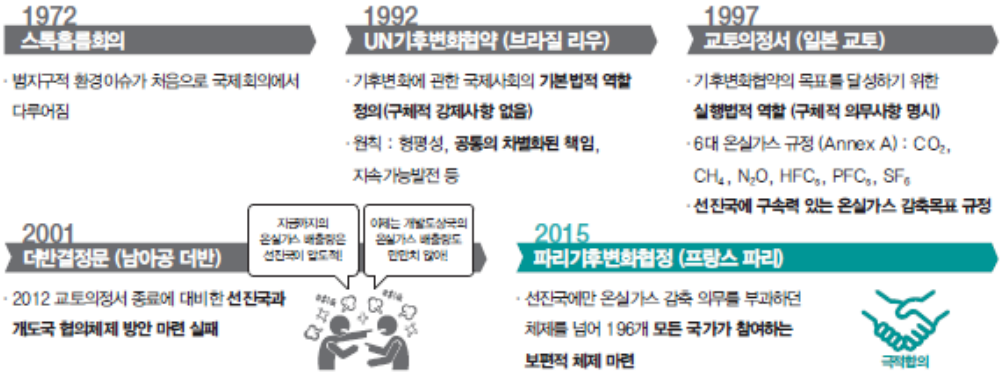
2015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명시적 구분없이 온실가스의 감축과 적응 노력 등에 동참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 체제의 기본틀이 수립되었다. 파리협정은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015년 파리 개최)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30~2050년에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인 1.5~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명시한 이유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온도 대비 2℃ 이상 상승될 경우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즉, 임계값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네이처 기후변화에 지구 기온 상승이 이미 1.7℃를 넘겼다는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18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이미 기온 상승이 1.5℃를 초과했다. 1860~1900년대까지는 기온이 0.3℃ 상승했지만, 1900~1960년에는 매년 0.04℃, 1960년대 이후에는 매년 0.1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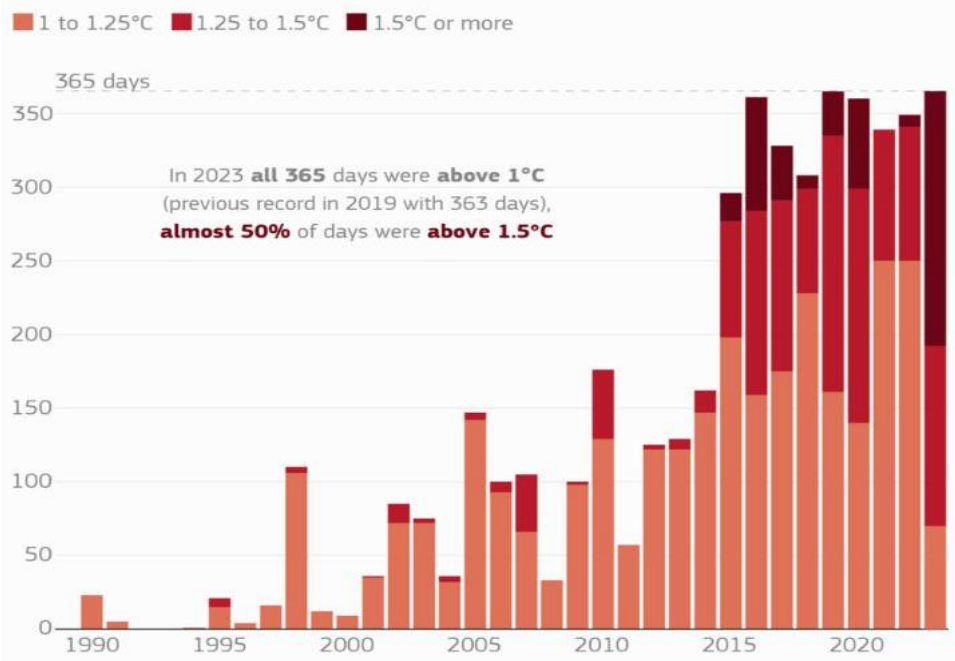
엘니뇨의 현상에 의한 일시적인 기온 상승으로 취급하기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3]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노력



자료: GS 칼텍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대비 상회한 일 수



자료: Copernicus, ECMW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청정대기센터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 대비 1.5℃와 2.0℃를 상회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 강도. 폭염의 강도는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 대비 1.5℃상승할 경우 약 3℃정도의 추가적인 온도 상승이 이지만, 2℃ 상승할 경우 약 4℃ 정도의 추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열대야의 증가, 폭염일수의 증가 등은 높은 신뢰수준에서 2℃에서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강수량 역시 2℃상승이 1.5℃상승 대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식지 축소. 육상 생태의 경우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이 1.5℃온난화에서 곤충이 6%, 식물이 8%, 척추동물이 4%인 반면 2℃온난화에서는 곤충이 18%, 식물이 16%, 척추동물이 8%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뭄 발생횟수.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는 극한 가뭄이 10년에 한번 발생하였다. 평균 기온이 1.5℃ 상승시 2번, 2℃상승시 2.4번으로 증가한다. 즉,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2℃상승시 약 4~5년에 한번씩 극한 가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5] 전 지구 평균기온 1.5℃와 2.0℃ 상승시의 영향

구 분	1.5℃	2℃	비 고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 ~ 90%	99% 이상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2℃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 억 명 증가		
물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그 외	평균 온도 상승(대부분의 지역), 극한 고온(거주지역 대부분), 호우 및 가뭄 증가(일부 지역)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에서 두 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면적	6.5%	13.0%	2℃에서 두 배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 ~ 0.77m	0.30 ~ 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복원 어려움)	1.5℃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자료: 청정대기센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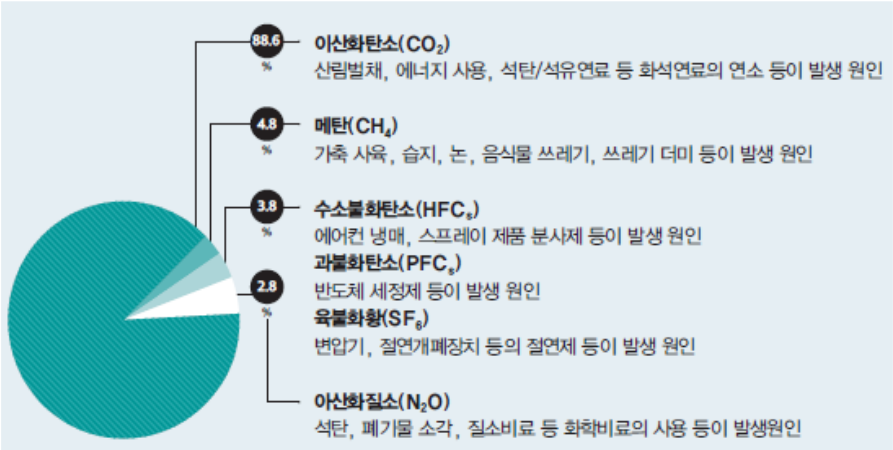
지구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의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권역별로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날씨와 기후를 만들어 낸다. 수십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기후변화라고 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내부변동성 요인(열의 순환, 태양에너지 반사량 변화, 탄소순환 등)과 태양에너지 입사량 변화에 따른 기후영향을 주는 자연 강제력 요인(화산분출물에 의한 태양에너지 흡수량 변화, 태양흑점, 지구 공전궤도 변화)이 이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산업화로 인한 에어로졸 증가, 토지 피복 및 산림 파괴로 태양에너지 반사율 변화 등이 있다.

앞서 2020년 이후 라니냐의 냉각효과에도 평균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한 바이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특히, 온실효과 영향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짧은 파장의 복사는 통과시키고,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긴 파장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대기에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기체를 의미한다.

[그림 16] 온실가스 구성



온실가스	화학식	체류시간 (년)	발생원	지구온난화지수 (GWP)
이산화탄소	CO_2	5~200	산림 벌채,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의 연소 등	1
메테인	CH_4	12.4	가축사육, 습지음식물쓰레기, 쓰레기더미 등	28
아산화질소	N_2O	121	석탄, 폐기물 소각, 화학비료 등	265
염화불화탄소	CFC-113	85	냉매체, 발포제, 충전제	5,820
육불화황	SF_6	3200	전기제품 및 변압기 등 절연체	23,500

자료: 기상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기상이변. 평균적인 지구의 온도가 아주 조금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비가 내리는 장소나 내리는 정도, 기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는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게 되고, 비가 내리는 양이 증가된다. 하지만 기온이 높으면 건조화가 빨라지면서 홍수와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태풍 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해수면 상승. 기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이 팽창하거나 빙하, 빙상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IP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약 18~58c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되는 곳은 몰디브, 키라바스, 통가 등 지표면의 높이가 수미터에 불과한 소도서국가나 방글라데시의 갠지스 브라마푸트라강, 이집트의 나일강, 나이지리아의 니제르강 등 하구의 델타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이 1m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6%, 방글라데시는 17.5%의 토지가 수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빙하감소. 지난 20세기 동안 북극지대의 대기온도가 약 5도 증가한 결과 빙하 감소, 극지방 호수의 Ice Cover기간 감소 등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지난 20세대 동안 감사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1/3까지 감소되었다.

심층해류. 북극에서 바닷물이 녹으면 북대서양의 염분농도가 낮아져 표층수와 심층수의 순환이 방해를 받는다. 이 변화에 의해 북반부 방향의 열수송과 적도를 횡단하는 열교환이 약해질 수 있다. 해역의 순환이 변화되며 대규모의 기후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수. 1870년 이후 발생한 홍수의 발생 빈도와 피해 영역 모두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 발생한 홍수의 발생빈도는 1900년대 초반까지 뚜렷한 증가/감소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19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빈도는 10년 이상의 장주기 규모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성은 유럽지역의 홍수 발생에 자연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 또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합재해. 최근에는 극한 기상의 결과로 하나의 재해가 발생한 직후 앞서 발생한 재해와 동일한 정도 또는 보다 큰 규모의 재해가 일어나는 복합재해의 발생 빈도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열파와 가뭄 그리고 산불이 함께 발생하는 등 복합재해의 위험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복합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서부의 경우 건조한 해의 발생 증가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건조하고 무더운 해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재해의 특성을 보이는 해들의 발생은 지난 100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조하고 무더운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해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산불 발생에 매우 좋은 기상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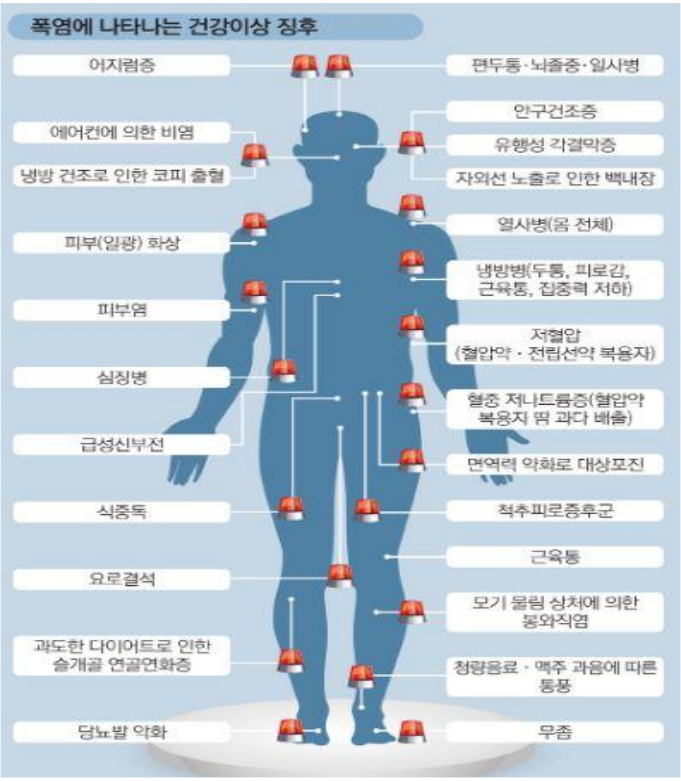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에도 관심 받을 수 있는 기업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2023년부터 이어져온 지구 온난화 현상은 라니냐를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①기후변화의 1차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 온도인 1.5℃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②최근 라니냐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다. ③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기온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체는 주위 환경과의 지속적인 열 교환을 통해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킨다. 고온에서는 피부혈관 확장을 통해 피부 온도를 높여 복사에 의한 체열 방출을 크게 하려는 생체 반응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심장에서는 피부 표면의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박이 빨라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온에서는 기초대사에 의한 체열 발생이 감소→식욕부진→음식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화학적 조절(Chemical regulation)이라고 한다. 즉, 고온은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피부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온환경에서는 발한에 의한 증발열을 통해 체열을 방출하는데, 특히 환경온도가 34℃ 이상이 되면 모든 체열 방출은 증발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고온 질환, 특히 일사병의 발생에는 증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열과 관련된 질병(피부발진, 열 경련 제외) 들은 체온시스템의 감퇴로 인해 발생된다. 이를 물리적 조절(Physical regulation)이라고 한다.

[그림 17] 폭염에 나타나는 건강이상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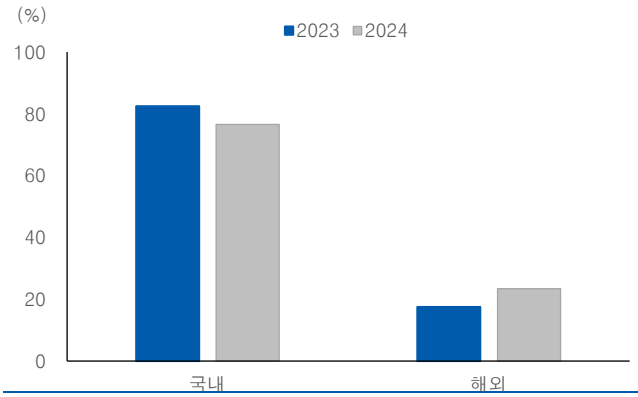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애슬레저 의류. 올해 여름 휴가차 해외를 찾는 여행객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여행지로 동해안을 선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이 76.6%. 해외 여행이 23.4%를 차지했다. 해외 여행이 작년대비 5.9%P 증가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여행 예정지역으로는 동해안권(25.1%), 남해안권(17.9%) 순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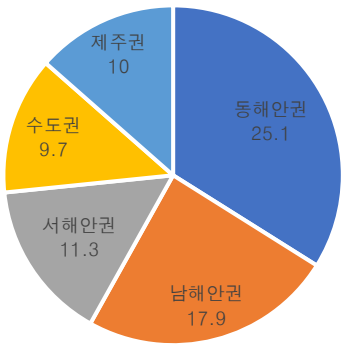
애슬레저 의류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젝시믹스 브랜드의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 안다르 브랜드의 에코마케팅(230360) 등이 있다. 두 기업은 수영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레쉬가드와 실내외 스포츠 활동 의류인 애슬래저 의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의 매출처 확대와 아웃도어 의류로의 품목 확장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8] 하계 휴가철 국내와 해외 여행 예정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국내 여행 예정지역(2024 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젝시믹스 모델 우기

자료: 젝시믹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안다르 모델 전지현

자료: 안다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피부. 폭염은 햇빛에 의한 피부 화상, 열사병 등을 유발한다. 강한 자외선은 폭염과 동반된다. 피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는 주름, 색소침착, 탄력저하를 유발하며, 피부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지외선B는 피부화상, 피부암, 홍반 등도 야기한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Sun Care 제품이 이다. 동사의 이승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화장품: Sun을 잡아라] 보고서(2024년 4월)에 따르면 2분기 화장품 ODM사들이 Sun Care 제품 주문량이 가장 많은 성수기이다.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현상을 최소화하고 가벼운 사용감을 제공하여 일생생활과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자외선 A와 B를 모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으로 기술되어 있다. 관련주로는 코스메카코리아(241710), 한국콜마(161890)를 제시하였다.

악화된 피부를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스테틱 기기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자료로는 동사의 손현정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모멘텀 美人주 3인방] 보고서(2024년 1월)가 있다.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올(335890)와 창상 치료제 OEM사업을 영위하는 티앤엘(340570) 등이 있다.

[표 2] 에너지별 에스테틱 관련기업

종류	제조사	브랜드	목표 피부층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멀츠	울쎄라	SMAS 층
	클래시스	슈링크, 슈링크유니버스	
	제이시스메디칼	리니어펌, 리니어 Z	
	원텍	타이탄	
	하이로닉	더블로	
비침습 RF(고주파)	솔타메디칼	써마지 (모노폴라)	진피층
	원텍	올리지오, 올리지오 X (모노폴라)	
	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 (모노폴라&바이폴라)	
	클래시스	볼뉴머 (모노폴라)	
	인모드	인모드 FX, 포머 등 (바이폴라)	
마이크로니들 RF	제이시스메디칼	포텐자	진피/피하지방층
	비올	실펌 X	
	루트로닉	지니어스	
	이루다	시크릿 RF	
	인모드	인모드 모피우스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산균. 고온으로 인해 위장의 운동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설사 등의 위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듀오락(쎌바이오텍), 락토핏(종근당건강), 덴프스(에이치피오), 드시모네(헥토이노베이션의 자회사 헥토헬스케어) 등이 국내 대표적인 유산균 제품이다. 특히 에이치피오(357230)와 헥토이노베이션(214180)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2]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에코마케팅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코스메카코리아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한국콜마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비올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7] 티앤엘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단위: 원)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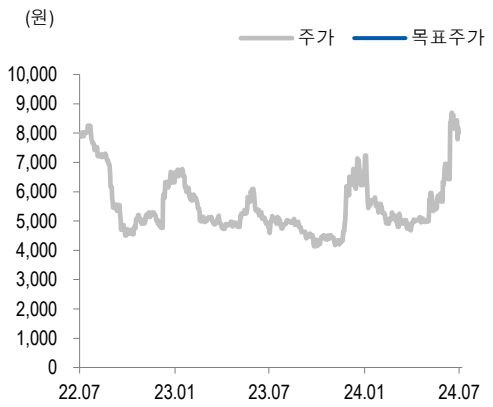
[그림 28] 에이치피오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헥토이노베이션 최근 2 개년 주가추이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37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7-26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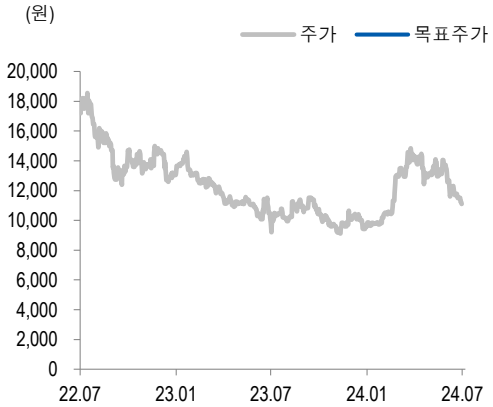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에코마케팅 (2303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7-26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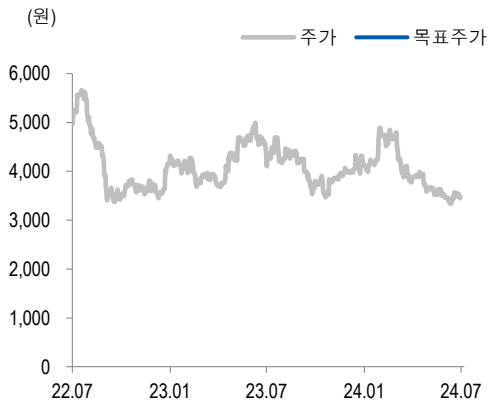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에이치피오 (3572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7-26	Not Rated	-	1년		
2024-02-16	1년 경과 이후		1년		
2023-02-16	Not Rated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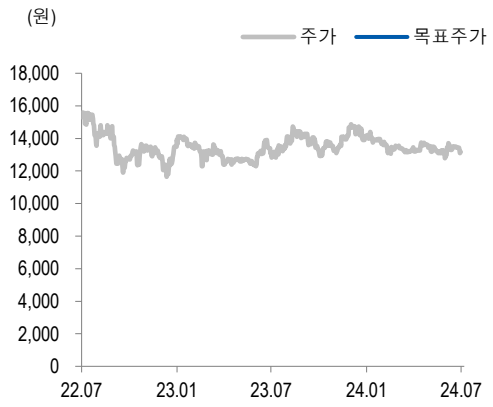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헥토이노베이션 (2141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7-26	Not Rated	-	1년		
2024-05-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4.2
Hold(중립)	15.8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07-25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